

# 경북도환경연구원 옛장수 맘대로 경영...

2009년 연수원 설립 현재까지 재산조사 단 한 번도 받지않아 회계관리 엉망 직원 복무관리 시스템 구멍 송송 부실덩어리

경북도환경연구원 경영이 제멋대로다. 회계관리는 엉망이고, 직원 복무관리 시스템은 구멍마져 뚫렸다.

교육훈련 지원대상자 선발 기준 역시 절차없이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등 부실투성이다.

2009년 연수원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재산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북도환경연

구원의 방만 경영이 예산잡아먹은 하마로 둔갑한 셈이다.

이 사실은 경북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경북도 감사결과 경북도환경연구원(구미)은 2022년 3월부터 'OO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거래없는 자에게 직불카드'로 결제한 뒤 서류를 회계부서에 제출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12월 인센티브 지급시기에 통장잔고가 모자라자 12월16~27일에 그동안의 결제를 취소해 반환 받아 지급금액을 마련한 후 인센티브를 집행했다.

37일 동안 부적정 지급액에 대한 취소를 지연했다.

이 같은 사례는 2022년 'OO교육'과 다른 일부 사업에서도 나타났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 관련 사전 편의도 없고 계약이나 납품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용카드 결제했다.

다음달 카드사용 대금 청구서를 받고서야 취소했다.

하지만 연수원은 이 같은 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신재병가를 신청한 직원이 병가 기간이 끝났으나 출근하지 않는 데도 근태관련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했다.

지난해 3월 환경 관련 교육을 하면서 일부 인원의 자부담비를 담당자 개인 계좌에 약 3개월 동안 보관한 일도 있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훈련 지원 대상자 선발 기준, 절차없이 교육훈련비를

집행했다. 2022년에는 교육훈련비 항목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직원들의 업무 능력향상에 따른 교육비도 지급했다.

2개 단체에 2013년부터 시설물관리규정이 정한 사용 '시간'이 아닌 '연(年)' 단위로 하고 시설물 사용 신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실'로 19건의 시설물을 사용승낙했다.

이들 사무실 사용료를 규정이 정하고 있는 정액 유지관리비가 아닌 전기료, 상수도 요금, 방범시설 사용료에 대한 실비를 전년 대비 추정 산출해 징수했다.

결국 경북도가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번에 따른 정상적인 대부료를 산정했다면 징수할 수 있었던 수천만원의 징수

기회를 상실, 이들 단체에 특혜를 준 결과가 됐다.

요금 자판기 5대와 자판기 사업자의 창고용 컨테이너 1기가 무단으로 설치, 연수원의 전기와 상수도를 무단으로 사용했는데도 방치했다.

연수원은 신용카드에서 발생한 100여만 포인트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세입 조치하지 않아 43만 포인트가 소멸, 신용카드 관리가 부실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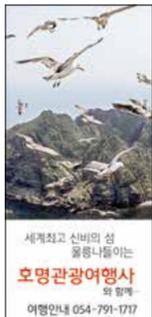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직원명절 선물 구입 등을 정원기산업투비 예산으로 집행, 예산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북도는 환경연수원에 사안별로 주의, 시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김성용 기자



'예술로 대구' 파견 예술인 '패밀리데이, iM from DGB' 성료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마련한 '2024 예술로 대구' 파견 예술인 '패밀리데이, iM from DGB'가 막내렸다. 지역 예술인과 소상공인의 상생 및 시민과 임직원 가족들이 함께하는 축제다. 행사는 지난달 27일 iM

# 대구환경영향평가



군위경찰서 간부 음주 단속 적발... 군위경찰서 소속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칠곡경찰서는 군위경찰서 간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칠곡군 왜관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 옛 안동역사 100년만에 안동시민 품에 안겨

옛 안동역 터 안동시에 매각 한국철도공사 이사회 통과... 안동역사 터 개발사업 탄력

중앙선 1942 안동역(옛 안동역사) 터를 안동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공사 본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옛 안동역사 터 내 편입된 한국철도공사 소유 자산 4만9115㎡를 안동시에 매각하는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옛 안동역사 터는 전체 18만2940㎡ 중 국가철도공단이 56.4%, 한국철도공사가 35.3%를 차지하고 있다.

안동시는 2018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를 통해 부지매입을 위한 준비를 이미 마쳤다.

하지만 두 기관에 대한 1:1 협상으로는 이해관계 조정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2023년 5월 안동시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세 기관이 참여하는 '옛 안동역사 터 개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4차례 회의를 거쳐 한국철도공사 부지 전체 및 서측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지 매각 결정이라는 성과를 얻게 됐다.

향후 동측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매각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 연결도로 및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에 편입된 한국철도공사 부지는 이달 손실보상을 완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송명주 기자

## 홍준표 마이웨이 행정... TK신공항 '플랜B' 고수

독선이라는 비방 꽤넘치않아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한다

홍분표(사진) 대구시장의 강경노선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홍 시장은 최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관련,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성화물터미널 위치 선정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다.

홍 시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일을 하다 보면 온갖 음해와 시기, 질투를 만나게 된다. 거기에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추진력도 떨어지고 잘하던 일도 주저하게 된다"고 글을 올렸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놓고 경북도, 의성군 등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홍 시장이 예정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대신 군위 우보에 건설하는 '플랜B'를 고수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추진력 있게 일을 하다 보면 늘 따라붙는 게 독선이라는 비방이지만 껴넘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책사업에는 늘 때스기와 역지가 따라붙는다. 풀수 없는 매듭은 잘라내어 야하고 굶은 증기는 짜내야 완치가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랏일이거나 지역 일이나 추진하는 과정은 똑같다"며 "대구 미래 100년

사업들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10일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경북도의 무관심과 의성의 복수터미널 위치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위군 우보면에 TK신공항을 건설하는 플랜B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홍 시장은 "정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12월로 예정돼 있다"며 "더 이상 폐법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플랜B가 가동되지 않더라도 경북도와 의성군은 늦어도 10월 말까지 국토부와 국방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月刊 정치와 사람 11월 11일 첫 만남!

2024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 축제 2024. 10. 12.(토)~13.(일) 2일간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104 어울림마당

#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2

## 군위향교, 명륜당서 석전대제 봉행

군위향교는 지난달 28일, 공자탄생 2575주년을 맞아 지역내 유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향교 명륜당에서 공자(孔子)를 비롯한 선현(先賢)을 추모하고 공적을 기리기 위한 석

전대제를 봉행했다. 석전대제는 1986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돼 공자(孔子)를 비롯한 선성(先聖)과 선현(先賢)들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문묘에 배향된 옛 성현들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배우기 위한 전통의식 행사이다. 석전대제의 예례는 홀기에 의해 진행되고 국조오례의 규격을 원형으로 하고 있으며, 초헌관이 향을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를 시작으로,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수조례, 절변두, 망료례 등의 순으로 거행했다. 박재성 기자



# 달성군 모빌리티산업 주요기업 '교류의場'

##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주요기업 참여 간담회 기업 애로사항 등 청취

달성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농공읍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산단 내 강소기업 19개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달성1차산업단지는 올해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되는 등 달성군의 미래 모빌리티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983년에 조성된 달성1차산단은 자동차부품, 농기계 등 전통적인 제조업체 중심의 산업단지로 달성군의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이자 지역경제를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는 만형 같은 존재다.

이곳에는 340여 개 기업체와 1만 3천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국내 농기계 제조업 대표기업인 ㈜대동,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대표기업 ㈜이수페타시스, 전문의약품 전문기업인 동아에스티, ㈜사니가 있다.

상신브레이크, ㈜평화홀딩스, 삼우이피(주), ㈜대길, ㈜오대 등 다수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달성1차산단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이번 기업간담회에는 달성군청,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산단 내 강소기업 19개사가 참석해 기업인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수페타시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언급한 것은 기어수정비, 수목정비, 교통환경 개선 등 환경정비 문제다.

조성된 지 40년이 넘는 오래된 산업단지지만

큰 산단 내 환경정비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달성군 역시 매년 산단 내 가로수인도정비 등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추후에도 구역별 집중 정비 등 깨끗한 산단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했다.

동아에스티와 평화홀딩스는 에너지 분야 관련해 관내 기업의 에너지 관련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달성군과 기업체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컨소시엄 구성을 요청했다.

삼우이피(주) 외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급리고 물가에 따른 경영난을 문제로 꼽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건의했으며, 달성군 역시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현대정밀은 인력수급 문제로 인건비, 정주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이외에도 노후 공장 리모델링 지원 등 다양한 과제들이 논의됐다.

채희길 달성1차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달성군에서 달성1차산업단지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이번 간담회 역시 우리 산단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공단도 기업인 및 달성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1차산업단지는 우리 군을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단지다."

올해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향후 우리 군 모빌리티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제18회 달서하프마라톤대회 성황리 개최

### 역대 최다 1만여명 참여 5km 구간 가족 참가 인기

달서구가 지난달 29일 호림강나루공원에서 진행된 제18회 달서하프마라톤 대회에 역대 최다 인원인 1만여명의 마라톤 동호인, 봉사자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다.

달서하프마라톤 대회는 매년 아름다운 코스와 원활한 대회운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대회는 달서하프마라톤의 인기를 반영하듯

접수가 7월말에 조기 마감됐다.

8시부터 대회장에서는 마라톤 동호회원, 가족 단위 참가자 등 많은 인원이 풍물놀이와 댄스 공연, 태권도 시범 등이 펼쳐진 식전행사를 감상하며 대회를 준비했다.

대회 종목은 하프와 10km, 5km 3개 종목이며, 하프 종목은 4개부(청년부, 장년1부, 장년2부, 여자부), 10km 종목은 3개부(청년부, 장년부, 여자부)로 나눠 경기가 진행됐다.

마라톤 코스는 작년과 동일하게 운영돼 마라톤러들이 좋은 날씨와 깔끔한 구간을 달리며 좋은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

5km 구간 역시 대명유수지 생태탐방로와 달성습지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걷고 달려 특히 가족 단위 참가자들에게 좋은 기억을 선사했다.

이대훈 달서구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 참가자가 참여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다."

앞으로도 달서하프마라톤대회가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과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 서구 비원무직홀, 포시즌 특집 '2024 가을' 공연

KBS대구방송총국과 공동기획 tvN유퀴즈 출연 유명광 참여



서구 비원무직홀은 5일, KBS대구방송총국과 공동기획으로 포시즌 특집 '2024 가을'을 개최한다.

비원무직홀과 KBS대구방송총국은 지역의 클래식 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동기획으로

2024년 포시즌 특집 시리즈 4편을 함께한다.

포시즌 특집은 안토니오 비발디의 작품 '사계(Le quattro stagioni)[이태리어]'를 영어로 표현한 '포시즌'에서 착안한 시리즈이며, 이름의 유래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분기마다 진행되는 시리즈 공연이다.

올해 진행되는 포시즌 특집 중 '2024 봄'과 '2024 여름'은 각각 지난 3월과 6월 성황리에 마쳤다.

피아노의 시인 '윤홍천'과 독일 뮌헨 음대 교수로 재직중인 '닐스 뮌케 마이어', 스미일 테너 '원화평' 등 수준급 아티스트가 선보이는 공연에 많은 관객이 호평을 한 공연이었다.

5일 진행되는 공연은 포시즌 특집 세 번째인 '2024 가을'로 국내 최정상급 예술가 및 지역 청년 예술가의 무대를 준비해 지역민에게 선보이고자 한다.

하노버 국제 콩쿠르 우승과 31세의 젊은 나이에 서울대 음악대학 조교수에 임명되며 예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클래식 기타 하나로 유럽의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열두 장의 앨범을 발표한 기타리스트 박규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가 출연해 화려한 악기의 매력을 선보인다.

## 수성문화재단, 축제서 관광객 유치 홍보

### 축제장 찾은 몽골인과 교류 영상들 몽골 페이스북 업로드

수성문화재단은 해외 관광시장을 겨냥해 몽골 비양주르흐구의 아기사자 캐릭터 '구예그'와 함께하는 수성구 홍보 마케팅을 펼쳤다.

한국에 관심을 둔 잠재적 몽골인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으로, 이를 위해 '구예그'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린 수성포스티벌 기간 대구 수성구를 찾았다.

지난 8월부터 수성문화재단과 함께 SNS를 통한 건강한 수성구 여행 알리기에 나선 구예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몽골 현지인들에게 보다 생생한 수성구 여행 정보를 전달했다.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서 한복·다례를 비롯

한 한국 전통문화를 몸으로 느낀 구예그는 들안예술마을과 수성못 등 수성구 대표 웰니스 관광지를 직접 둘러보며 스파(Spa) 리조트, 의료관광 등을 체험했다.

수성포스티벌 현장에서는 수성구 캐릭터 '뚜비'와 수성구의 해외 우호도시인 일본 이즈미시노시의 캐릭터 '이누나킨'과 만나 K-POP 댄스 챌린지 쇼츠 영상을 촬영하고 꿈꾸는예술터와 수성투어버스 등 지역 관광 콘텐츠도 소개했다.

축제 방문객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일반 시민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다.

'구예그의 건강한 수성구 여행기' 영상은 수성문화재단 유튜브 채널과 몽골 올림바트르시비양주르흐구 공식 페이스북에 업로드된다.

수성문화재단은 향후 몽골 관광객 유치를 위



한 여행객 관계자 미팅, 몽골 현지 홍보 설명회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만 2,080명의 몽골 의료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는 전체 방문 의료관광객 수 가운데 5위에 달한다"며 "의료관광뿐 아니라 K-뷰티, 한국전통문화체험 등 수성구의 우수한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맹위 떨칠까?

###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경북도민제보 창구운영

경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받는다.

2024 행정사무감사는 제351회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데 11월 7~20일까지 열린다.

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오는 31일까지다.

제보대상은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 △예산낭비 △위법·부당 행정사례 △기타 생활불편 사항

이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2건의 도민제보가 접수됐다.

정보방법은 경북도의회 누리집(도민참여-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이용하거나 이메일과 팩스, 우편, 직접 방문 가능하다.

처리결과와 감사가 끝난 후 제보자에게 직접 알려준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고 말했다.

2024 행정사무감사는 경북도청(사업소 포함), 도산하 공공기관 및 경북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실시된다. 김성용 기자

## 북구, 정보통신시설 운영실태 평가 우수

### 기관별 행정통신 서비스 장점 정보통신분야 전반 높은 평가

대구 북구청은 대구시에서 실시한 '2024년 정보통신시설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 구·군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보통신분야(4개분야, 21개 항목) 전반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대구 북구는 정보통신 보안체계 강화, 부서

방문 보안지도점검 수행 등 정보통신 보안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관별 다양한 행정통신 서비스(스마트도시, CCTV, 공공 와이파이 등) 대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및 시행으로 정보통신 발전에 적극 앞장서는 등 그 노력과 역량을 인정받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정보통신분야는 물론 사물인터넷(IOT), CCTV 인프라와 연계 등 다양한 업무발굴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제2회 구미 에듀케이션 포럼 참석

경북도는 1일 구미 호텔금오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인 경북 제2회 구미 에듀케이션 포럼'에 참가했다. 이날 아시아 16개국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정책

를 소개했다. '구미 에듀케이션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아시아 16개국 교육 관계관들이 참여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사례 공유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교육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교육 포럼이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 시대, 교육 격차 해소'라는 주제로 경운대학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남아시아교육부장관기구(SEAMEO)가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후원했다.



# 대구·경북의회 조례발의 꿀짜... 놀면서 의정비만 올랐다?

대구·경북의회, 1인당 조례 발의 건수 전국 '최하위권' 2년 동안 대구시의원 1인당 발의건수 5.3건, 경북 5.2건 대구경실련 "실적부진 광역 기초의원 공천 배제... '일침'

대구시의원, 경북도의원들의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사실상 전국 꼴찌다. 최근 2년 동안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조

례발의 건수가 전국 최하위이다. 이 사실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방의회 전반적 조례 입법 실태 공개에서 확인됐다. 조례 입법 실태 공개결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1인당 평균 발의 건수(7.2건)에 미치지 못했다. 대구시의회의 최근 2년간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는 163건으로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적다. 1인당 발의 건수도 5.3건으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경북도의회도 전체 발의 건수 314건으로, 1인당 발의 건수가 5.2건에 그쳤다. 전국 광역의회 17곳 중 경기도의회(4.1건)와 경남도의회(6건)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 경북에선 전반적 2년 차에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었다. 경북도의회는 전반적 2년 차에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전체 60명 중 4명(6.7%)이었다. 대구시의회는 2년 차 조례 미발의 의원이 없었다. 기초의회 역시 조례 발의가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년간 전국 기초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안발의 건수는 5.9건이다. 대구 지역 9개 기초의회 중 예선 남구의회 8.9건, 달성군의회 8.8건, 중구의회 7.6건 등 3곳만이 평균을 넘겼다. 나머지 6곳의 의원 1인당 발의 건수는 △달서구의회 5.5건 △수성구의회 5.3건 △서구의회 4.6건 △북구의회 4.3건 △동구의회 3.5건 △군위군의회 2.4건 순이었다. 경북에선 22개 기초의회 중 청도군의회 7.6건, 청송군의회 6.3건, 문경시의회 6.2건을 제외한 나머지 19곳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회 의원도 27명으로, 전국 의원 중 25.5%를 차지

해 가장 많았다. 대구경실련은 이번 실태조사를 두고 "조례 제·개정안 발의 건수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 의정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방의회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의정비 등 의회, 의원 관련 예산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당도 실적이 부진한 의원들을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부실한 입법 활동을 한 광역 기초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김성용 기자

## 홍준표, 대구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 도시 자신

홍준표 대구시장,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 메타 방문 전국 단체장 처음



홍준표 대구시장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 메타와 세계 최대 스타트업 육성기관 PLUG AND PLAY 본사를 방문해 기업 트렌드를 파악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30일 홍 시장은 먼저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메타 본사를 방문했다.

국내 단체장이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인 메타 본사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시장을 맞은 앤디 오코넬 메타 부사장은 "홍 시장이 한국 정치인들 중 가장 활발히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본사 방문을 환영했다.

홍 시장은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하거나 시정을 홍보할 때 거의 페이스북을 사용한다"면서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자기 의사나 의견을 표명할 때 기자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페이스북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지고 필요할 때는 새벽에도 글을 쓰면 10분 내 기사가 된다. 그래서 한국에는 페이스북이 소통 수단으로 제일 유용하게 사용되고 널리 퍼져 있다. 페이스북 본사에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앤디 오코넬 메타 부사장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오셨다"며 지난해 메타의 가장 큰 연례 행사인 커넥트2024에서 발표한 새로운 제품들과 아이디어들을 5가지 새로운 이니셔티브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는 우선 VR 가상 현실과 혼합 현실을 볼 수 있는 퀘스트, 실제 공간에 메타버스를 가지고 끌어오며 오는 하이퍼 스케이프, 그리고 핸드폰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동시통역 등 AI 기능이 탑재된 AR 글래스(레이벤메타) 및 차세대 AR 기기 시제품(오라이언)을 차례로 소개하며 진행됐다.

홍 시장은 "여태 페이스북 등을 통한 광고 매출 등이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있는데 앞으로는 AR글래스를 통해 제조업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홍 시장이 제안한 협력사업은 AR글래스의

안경테 OEM으로 "대구엔 전 세계에서 안경 제조업체가 집약돼 있는 지역 중 하나이고 대구에서 만드는 안경테가 세계적인 제품으로 대접받는다"며 "나중에 대량생산 단계에서 OEM 할 때 대구를 적극 검토 해달라"고 축사에서 제안했다.

메타 측은 "아직 실제 제품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말씀 주신 내용들을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메타만의 오픈 소스 AI 모델과 관련된 주제에서 앤디 오코넬 메타 부사장은 "이제 AI가 어느 한 기업에서 독점되지 않고 오픈 AI로 앞으로 인터넷 기술처럼 AI의 기본 기술들을 무료로 쓸 수 있으면서 AI를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메타가 기여 한다고 생각한다"고 메타의 경영철학을 밝혔다.

홍 시장은 "체계를 이끌어가는 기업가다운 발상"이라며 "메타가 이렇게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업가 정신을 가져주는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메타 본사 방문에 이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은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육성기관이자 벤처 투자사인 PNP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아미르 아미디 PNP 부사장 등 임원들과 만나 지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PNP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그 해 4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대구에 지사를 설립해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은 PNP 본사와 대구지역 기업 간 투자협약식도 함께 진행됐다. PNP가 국내에서 지역기업을 직접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은 2022년 창업해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주)엠에이아이티(MaiT, 대표 이시욱)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PNP가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실리콘밸리 본사 방문을 계기로 대구시는 PNP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와 스타트업 육성에 더 집중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PNP와의 협력을 통해 대구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며, "대구가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미르 아미디 PNP 부사장은 "최근 대구에 많은 투자유치가 이뤄지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가 세계적인 창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을 비롯한 이번 미국 방문 대표단 일행은 지난 25일부터 LA 한인축제 초청에 따른 대구 홍보관 참가, 미주지역 기업 진출 지원 등의 첨병 역할을 할 LA 대구사무소 개소식 참석, 대구 100대 혁신과 미래 50년 구상을 위한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 방문 및 시찰 등의 바쁜 일정을 마치고 2일 귀국한다. 조여은 기자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성공신화 쏘아 올렸다

역대 최고 흥행작 신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4일간 62만여명 다녀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축제는 지난해 27일을 시작으로 오는 6일까지 10일간 열린다.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주말을 포함한 4일간 60만여 명이 방문객이 다녀갔다.

탈춤 축제가 가진 브랜드 가치 제고와 더불어 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신호탄을 날렸다.

축제의 첫날 개막식에는 대동무대 앞이인산인해를 이루 이번 축제의 성공 가능성을 점치게 했다. 개막식 전에는 대구 규모의 시민과 외국공연단 등이 참가한 원도심 길거리 퍼레이드가 열렸다. 개막식은 주제공연, 대동난장, 불꽃놀이 등으로 참가한 시민과 관광객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막바지 휴일을 즐기려는 19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축제장 전체가 인산인해를 이뤘다.

탈춤 축제는 작년부터 이어진 공간확장과 콘텐트 확대, 그리고 탈춤 축제만의 정체성을 살린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6개국의 50여 팀의 외국공연단이 참

여, 마스크체인지존을 만들어 축제장을 들어올 때 탈을 쓰도록 만드는 등 탈춤 축제 본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많았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더본존을 만들고, 탈춤과 연계한 음식으로 색다른 먹거리를 선사해 축제 흥행에 한 축을 담당했다.

30일부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견연대회 등이 펼쳐지고 있다.

1일과 3일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짐에 따라 탈춤 축제를 방문하는 방문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탈춤 축제 마지막 행사인 16일에는 세계탈놀이 견연대회와 각종 시상식 그리고 대동난장, 불꽃놀이 관공객들을 사로잡는다. 송병주 기자

## 제77주년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경북 최초 열려

농업대전환 확산 다짐 새로운 농업·농촌 도약 농촌지도자 화합의 장

제77주년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가 2일까지 3일간 포항시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다.

대회는 지난해 6월 농촌지도자 경북도연합회에서 전국대회 유치신청서 제출과 8월 대회 개최계획 브리핑, 시설 확인 등 심사단의 현장확인 등을 거쳐 경북이 전국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전국 17개 시도 1만 5000여 회원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새로운 농업·농촌, 도약하는 농촌지도자라는 주제로 경북에서 최초로 개최됐다.

농촌지도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대한민국 농업의 우수성을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마련됐다.

대회식에는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이강덕 포항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농업인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훈장 등 정부포상 시상, 감사패 전달, 농촌지도자 비전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경북도에서 농업 연구성과, 저출생 극복, 농업대전환 등 정책홍보관을 운영, 경북의 정책과 성과를 홍보하고 경북도에서 육성한 신종 품종 포도 시식과 경북 전통주 소개뿐만 아니라 전통주를 활용한 하이볼 시음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행사로 도내 치유농장 10곳을 초청해 부추케이크, 아쿠아포닉스 화분만들기 등 도시민과 회원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등 학술행사와 농업실용기술 경진대회도 열렸으며, 전국 시도 우수농산물과 가공품 전시장을 운영했다.

시는 신활력플러스 사업 액션그룹 체험관과 농특산물 판매장, 포항시 농산물, 가공식품 시식코너도 운영했다.

노만호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제77주년 전국대회를 계기로 어려운 우리 농업환경을 경북이 주도하는 농업대전환을 통해 한 단계 도약시키고, 그 중심에 농촌지도자가 더욱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농업을 지켜온 농촌지도자회에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농업인은 도시민보다 잘살고 우리 농업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경북에서 농업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지도자회는 1947년 성인 자유티도자로 조직된 현재 전국 1천 928개회 10만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농업후계자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 권익 보호 등에 힘쓰고 있는 대표적인 농업인 학술포럼이다.

경주벼루박물관 손원조 관장(82)이 민화 및 펜화 전시회를 연다. 오는 6일까지 경주문화관1918에서 열린 그림 전시회는 손 관장이 15년전부터 배운 민화 30여점과 4년 전부

터익힌 펜화 20여점 등이 전시된다. 경주시·군 통합 제6대 경주문화위원장을 역임한 손 관장의 전시회에는 손수 그린 그림 이외에도 지난 50년 동안 직접 수집했던 합죽선(合竹扇) 50여 점도 함께 전시

해 볼거리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손 관장은 "펜으로 그리는 펜화는 특히 손과 머리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 작업이라 치매 예방용으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관장은 70년대 초부터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40여 년 동안이나 기자 생활을 해 온 원론 언론인이다.



# 축제의 계절... 경주 상인들 모처럼 활짝 웃었다

## 2024 황금카니발 축제 성료 안강 화전소담 한마당 풍성

축제의 계절 신라의 달밤이 춤을 추었다. 축제가 열리는 경주시내 곳곳 관광객들로 인산인해 이루었다. 상인들은 함박웃음을 지었고, 나들객을 천년 고장에 한껏 매료했다.

### 2024 황금카니발 축제 성료

경주 중심상가가 지난 주말 3일 동안 맥주·뮤직 페스티벌 등으로 젊음의 거리로 불리는 서울 흥대거리를 방불케 했다.

시는 지난달 27-29일까지 중심상가 및 봉황대 일원에서 중심상권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2024 황금카니발' 행사를 개최했다. 이 기간 총 15만 명이 다녀갔다.

행사 기간 봉황대 메인 무대와 중심상가 점포 일원에서는 흥대거리의 유명 아티스트 30개 팀이 개성 넘치는 공연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신라대종을 무대로 하는 추다해차지스 등 시간별로 구성된 공연은 카페, 식당, 게스트하우스, 미용실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채로운 뮤직 페스티벌을 이어나갔다.

문정현에서 개최된 갤러리시크스프레스와 크라이넛의 공연은 고즈넉한 한옥에 신나는 락 분위기를 더해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대왕시내마 1층 공실 점포와 주차장을 무대로

하는 음악 공연은 그간 발길이 줄어든 빈 점포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전국 유명브루어리의 수제맥주와 타코, 떡볶이, 닭강정 등의 다양한 먹거리는 3일간 식자재를 모두 소진할 정도로 방문객들이 축제장에 오래 머무르며 소비할 수 있게 했다.

신라대종 앞에서 펼쳐진 미카엘 아슈미노프 및 김만제 한국맥주교육원장의 맥주 주제 강의는 맥주를 직접 시음하며 맥주 종류별 음용법 등 맥주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음반 판매점인 대전소리사, 다비드커피 등 3곳에서는 김광현 월간 재즈피플 편집장, 김학선 음악평론가 등이 참석해 대중음악사를 주제로 토크쇼가 펼쳐져 축제의 또 다른 매력을 선사했다.

봉황대 메인 무대에서 펼쳐진 플리마켓을 비롯한 나무공예, 캐리커처, 대형캔버스 그림 체험 등의 체험 부스는 연인, 친구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유도하기에 충분했다.

중심상가의 한 상인은 "축제기간 전국의 MZ세대들이 방문해 모처럼 식당과 숙박시설이 문전상시를 이뤘다"며 "이번 행사로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 주말은 불금예찬 야시장에 황금카니발 행사를 더해 금리단길이 제2의 황리단길로 불리는 데 손색이 없었다"라며 "향후 빈점포 창업지원, 테마거리 조성, 금리단브 랜드 개발 등 남은 중심상권르네상스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중심상권을



주낙영 경주시장이 화전소담 한마당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만들겠다"고 전했다.

### 안강 산대11리 '화전소담 한마당'

경주 안강읍 화전소공원에서 지난달 29일 진행된 화전소담 한마당 행사가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마무리 됐다.

행사는 안강읍 산대11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역량 강화 목표를 위해 마련됐다.

산대11리는 2021년 산대4리에서 분리된 신생

마을로 공동체 활동 공간이 부족해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화전소담이라는 공동체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화전소담 한마당은 먼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연과 연극을 비롯해 고고장구 공연과 같은 전통 예술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주민 노래자랑과 행운권 추첨 등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관심

을 끌었다. 행사장 주변에는 플리마켓 부스가 설치돼 수공예품과 먹거리 등을 판매했다.

안강읍 산대1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4년 마을만들기 공모에 선정돼 2026년까지 3년간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화전소담 한마당이 주민들에게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며, 안강읍 산대11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 송선2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새단장

### 주민 소통과 화합의 장 어르신 휴식 공간 탄생

경주시는 지난달 30일 건전읍 송선2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은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경로당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기념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송선2리 경로당은 30년간 지역 어르신들의 소통과 휴식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건물이 전파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투입, 지난해 6월부터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연면적 111.76㎡의 규모로 남녀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포함



송선2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준공식

한 2층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고 준공식을 열었다.

김재현 대한노인회 건천 분회장은 "기존 경로당이 태풍으로 파손된 이후 임시로 사용하던 공간이 좁고 노후해 불편했으나, 이번에 새로 신축된 경로당이 주민 간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용찬 기자/사진=경주시 제공

## 낙엽 쌓이는 가을... 경주 문화유산속으로

### 월정교 상공 화려하게 수놓은 아름다운 신라의 달밤 '추억'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19일 이틀간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감각적인 역사 문화콘텐츠를 선보인다.

행사는 △야간 경관을 즐기는 야경(夜景) △야간 문화유산 탐사 야로(夜路) △전통놀이 체

험 및 전통이야기 야사(夜史) △전시와 체험의 야화(夜話) △문화공연으로 진행될 야설(野說) △교촌마을을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야식(夜食) △전통공예장터 야시(夜市) 등 7야(夜)를 주제로 15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 첫날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표상인 최부자 고택에서 풍물길놀이로 시작으로 오후 6시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첨단 기술아우러진 메인 공연 '영기터 쿵덕'을 선보인다.

신라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주제로 드론 300여대가 월정교 상공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아름다운 신라의 밤을 뽐낸다.

프로그램 중 청사초롱을 들고서 원효와 요석 공주의 설화를 느껴보는 사랑의 징검다리 와 한눈에 즐겨보는 3D 문화유산 전시는 반드시 체험해 볼만 하다.



사진은 지난해 문화유산야행 항공촬영모습

아동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 샌드아트 공연, 4D 큐브 증강현실 및 신라문화 놀이터 체험 등은 방문객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얼음 조각 전시, 1급 멸종위기 곤충 비단벌레와 만남, 리사이클을 활용한 패션쇼 프로그램은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포항 영천  
영덕 청송  
영양 울진  
울릉

포항 마이스산업 성공 기원... 이·통장 한뜻

이통장 한마음대회 성료  
성공 기원 퍼포먼스 연출  
29개 읍면동 900명 참석



영덕로타리클럽 나눔 봉사

영덕로타리클럽은 지난 27일 축산리 경로당을 찾아 의료 구급함을 전달하고 식사 나눔 활동을 펼치는 '농·어촌 어르신 식사 및 경로당 구급상자 나눔 봉사' 합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덕로타리클럽 박기복 회장과 영덕한마음로타리클럽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축산면 23개 경로당에 구급함을 전달하고 축산·3리 어르신 200여 명에게 공평을 대접했다.

박기복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진행한 의료용품 전달과 식사 나눔 활동을 통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기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큰 힘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의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기복 회장은 "영덕로타리클럽들의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가 한층 더 밝아진 느낌"이라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 증진에 헌신하는 로타리클럽과 협력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영양, 정보 보호 주간 운영

영양군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운영한다.

군은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이해 영양고추유통공사와 함께 직원 및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이 담긴 홍보지,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일상생활 속 내 정보를 지키는 습관' 내정보 지킴이 홍보를 진행했다.

홍보지에 담긴 생활수칙에는 △내 계정 정보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기 △출처가 불분명한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기 △택배송장,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개인정보 유출 주의 등이 있다.

이날 영양군과 영양유통공사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상호교류 및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무담당자 공동 협의회도 구성해 실무자 네트워킹 및 업무 협조체계 구축, 관련 동향 분석 및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영양군은 "이번 보호주간을 통해 군민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실생활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포항시는 지난달 28일 포항시종합운동장 만인당 옆 잔디구장에서 포항시이통장연합회 주관으로 '2024년 포항시 이통장 한마음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행정 최일선에서 시민과 가교역할을 하는 29개 읍면동의 이통장 약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하고 화합하며 지역발전의 동력을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공식 행사로 1부 개회식을 진행한 데 이어 2부 행사로 명랑운동회와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화합 한마당과 축하 공연이 진행되며 열기를 더했다.

이재규 이통장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통장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음대회가 성대하게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포항과 함께하는 동반자로 서로 소통하며, 이통장이 한마음으로 희망찬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지"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읍면동별 3행시를 발표하며 입



포항시는 지난달 28일 포항시종합운동장 만인당 옆 잔디구장에서 포항시이통장연합회 주관으로 '2024년 포항시 이통장 한마음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해 눈길을 끌었으며, 포항시 마이스산업 성공을 기원하는 포엑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역량을 결집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온 이통장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당면한 많은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길 바라며, 포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양군,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예산편성전 주요사업 논의  
신규 시책 공유 시간 가져

영양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수, 부군수 및 국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주요 사업 추진방향과 계획을 논의하고, 민선 8기 전반기 성과 점검과 함께 하반기 진입에 따른 핵심사업 추진 상황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한 신규 시책 공유의 시간이 됐다.

'확실한 변화, 지속가능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군민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 방안 등 주요사업 225건을 검토했으며, 그 중 신규사업은 63건으로 29.67%를 차지했다.



군은 민선 8기 3년 차 역점정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고속 도로, 철도 등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일손 걱정 없는 영농 환경 구축 △공공기관 유치, 군민 삶의 질 제고와 귀농·귀촌 대비 △정주 여건 개선, △취업·창업 지원 등을 꼽았다.

영양에서 서울까지 2시간 30분(현재 3시간 30분)시대를 열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남북 9축 고속도로 건설을 추구하고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사업 반영'과 '에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선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 청원을 주도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금쪽같은 1시간을 돌려드리겠다'는 각오로 남북 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물론이고 민간단체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는 '역대급 실적인 2024년도(8월 현재) 공모사업비 1,000여억 원 확보' 자신감을 바탕으로, 확실한 변화로 군민 노고에 보답하겠다는 오도창 군수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권윤동 기자

울진군, '10월 문화의 날' 기획공연 다채

중소 콘텐츠 유통 사업 공모  
'3팀3색 가을 콘서트' 개최

울진군은 다가오는 가을 '10월 문화의 날'을 맞이해 다채로운 기획공연을 개최한다.

울진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는 '지역맞춤형 중소기업 콘텐츠 유통사업' 공모 선정 공연 '렛미플라이'가 4일, 5일, 어린이 뮤지컬 '깃털피리'가 19일 개최된다.

'렛미플라이'는 시간여행이라는 판타지 소재를 생동감 있는 연출을 통해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며, '깃털피리'는 동물 캐릭터들과 다양한 인형들이 등장해 어린이에게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가족 단위의 뮤지컬로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연호문화센터에서는 기획공연 '3팀3색 가을콘



서트'가 15일 저녁 7시 30분에 개최되며, 울진의 대표 클래식 팀 '라파트리오', 혼성 5인조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 정통 재즈밴드 '연관호 콰텟' 3팀의 공연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라파트리오'와 '연관호 콰텟'은 피아노, 플루트, 콘트라베이스, 첼로 등 여러 악기를 이용해 클래식, 재즈를 비롯한 팝, 가요 등 다양한 장르를 색다른 편곡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며, '엑시트' 공연은 드라마 '도깨비' OST 'Beautiful', 뉴진스 'Ditto', 디즈니와 퀸 메들리 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노래들을 신선한 아카펠라 음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 예매 사이트를 통해 렛미플라이(6만원, 군민1만원) 예매 가능하며 오는 10월 1일 10시부터 깃털피리(1만원, 군민5천원)와 3팀3색 콘서트(무료) 예매가 진행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10월 풍성한 문화공연 개최로 군민들에게 감동과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통합예약시스템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울진연호문화센터(054-789-5488)로 하면 된다.

이정수 기자

전 양구경찰서장, 울릉 고향 기부금 전달

최고 한도액 500만 원 기부  
북구 시니어치안지킴이 활동

울릉군에 따르면 이 전(前)서장은 지난달 21일 군에 고향사랑기부제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

울릉군 북면 현포출신인 이 전(前)서장은 울릉 종합고와 영동대 부동산 건설학과를 졸업, 1978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했으며 경찰청 경비 1담당, 본청 경비 APEC 기획단, 본청 대테러센터 치안상황실장, 양구서장, 춘천 강원지방경찰청 정보화 장비 담당 등을 역임, 퇴직 후 대구에서 센터투어여행사, 한국관광협동조합 등 여행업에 종사하

다. 현재는 대구 북구 시니어클럽 시니어치안지킴이 사업을 통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종운 전(前)서장은 "기부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라며 "기부를 통해 내 고향의 이웃들이 행복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남관권 군수는 "이종운 전 양구경찰서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고향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새겨 기부금이 살기 좋은 울릉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영천시 소비축전 '마늘데이' 행사

영천시는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해 1~3일까지 3일간 마늘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마늘데이 이벤트는 (사)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영천시, 영천마늘농촌융복합사업추진단, 농협 마늘전국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이벤트 참여자 중 1003명을 추첨해 마늘 생산의 대표 주산지인 영천마늘을 원료로 만든 '영천별마늘 스낵 선물세트'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10월 3일은 고조선 건국일인 개천절을 기리는 날로 곰이 마늘을 먹고 여자가 된 뒤 환웅과 결혼해 단군을 출산했다는 단군신화에서 비롯됐다.

마늘의무자조금은 마늘과 연관 있는 10월 3일 개천절을 '마늘데이'로 정하고 마늘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도 경품으로 제공되는 영천별마늘 스낵 선물세트는 영천마늘농촌융복합사업의 일환으로 화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정낙은)에서 개발한 제품이며, 영천마늘을 원료로 한 마늘깡, 마늘침, 마늘부각으로 구성돼 있다.

최은하 기자

청송군, 마을 공동체 활성화 추진

청송군은 지난 26일, 경북 성주군 이웃사촌복지센터 관계자와 성주군 신남면 성원1리, 용암면 문명1리 주민 60명이 청송군 안덕면 신성2리(이장 배운기)를 방문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방문객들은 신성2리에서 추진 중인 주민 주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네스코 세계지질유산으로 등재된 공룡발자국 화석 등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고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방문객들은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백일홍 단지를 찾아가 가을 꽃놀이를 즐기며, 청송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끽했다.

윤병모 기자

울진군, 12월 동해선 철도 개통

울진군은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오는 12월 동해선 철도 개통을 목표로 시설물 검증을 위한 시험운행을 실시한다.

동해선 시험운행은 경북 포항에서 강원도 동해까지 172.8km 전철화사업 시험 구간으로 시험운행 열차는 KTX-이음, ITX-마음 등을 투입해 운행 중이며, 이번 시험운행으로 노선의 신호체계, 통신선로 정비, 주행 시험 등 모든 분야를 10월 말까지 점검한다.

동해선 열차 운행계획은 11월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정차역, 운행시간, 운행열차 등 세부적인 사항들도 같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ITX-마음과 누리로가 운행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정수 기자

경산 구미  
김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천, 시민 문화 축제 열려

김천시는 지난달 28일 행복감호 문화공원 일원에서 '삼도난장\_오래된 것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지역민과 방문객 등 2천여 명이 다녔던 가운데 시민 주도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삼도플리마켓, 감호 시간탐험대, 감호놀이왕을 이겨라, 감호삼도 주막, 낭만감호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삼도플리마켓은 상품 판매와 도자기 물레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감호시간탐험대는 놀이왕을 이겨라 등 가족이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낭만감호에서 마술쇼 및 버스킹 공연, 시니어호텔 패션쇼 등을 진행했으며, 축제의 피날레는 용두경로당 어르신들이 중심이 돼 모두가 하나가 된 '감호 플래시몹'이었다.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삼도난장' 축제는 장소 연출과 프로그램 기획 등 시민이 주도해 진행함으로써 지역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도재훈 기자**



고령, 대가야문화예술제

고령군고령문화원은 제51회 대가야문화예술제가 지난 28일 대가야 문화누리 일원에서 성대히 개최했다.

대가야문화예술제가 지역의 문화예술제로서 올해 51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예술제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대가야문화예술제는 '제1회 대가야풍물대축제', '제8회 대가야민속장기대회', '제8회 한국 사진작가협회 회원 작품전시회'가 연계 행사로 진행, 대가야풍물대축제는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로 각 8개 읍·면들이 참가해 성황리에 마쳤다. 그리고 문화부스운영, 문화상점 모두마켓, 지역 문화단체의 체험부스 등 먹을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저녁 초청 공연으로는 가수 더원, 도림곡악단(대북), 고령합창단 & 다산미라클합창단 등 다채로운 공연들로 가을밤의 멋진 추억을 선사했다.

신태운 문화원장은 "특히 1974년 4월 30일 문화원개원 이래 처음으로 2024 제17회 대한민국 문화원상 종합경영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하였으며 전국 232개 문화원 중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원으로 고령의 문화적 위상을 더 높였다. **배영백 기자**

# '경산갯바위 소원성취축제' 성황리 열려

아침 다례 봉행 많은 인파  
소원 · 힐링 음악회 등 열어  
지역 특산물 판매 병행해

지난달 28·29일 경산시 외촌면 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 개최된 '2024 경산갯바위 소원성취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축제의 시작을 알린 다례 봉행에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봉 정상에 올라 조현일 경산시장과 함께 소원을 기원했다.

행사에서는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학생들의 실용댄스, 어린이 합창단 공연, 난타·장구 공연과 지역 동아리의 흥겨운 무대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첫날과 둘째 날 저녁에 진행된 소원 음악회와 힐링 음악회에서는 김연자, 김다현, 황민우, 황민호, 김소유, 풍금 등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관람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무드등 만들기, 다육이 토분 꾸미기, 업사이클링 양말목 공예, 어린이 소방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돼 축제에 활기를 더했다.

지역 농가와 연계해 진행된 농산물 할인 판매 행



지난달 28·29일 경산시 외촌면 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 개최된 '2024 경산갯바위 소원성취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는 대추, 사인머스켓, 루비에스 미니사과 등 지역 특산물의 판매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었으며, 축제가 지역민과 함께 상상하는 장이 되었다

는 평가를 받았다. 축제는 주차 공간 확보와 관람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로 인해 예년

보다 많은 관람객이 축제장을 찾았다. 시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경산갯바위 소원성취축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 구미, 유관기관과 '행복두끼프로젝트' 협약

아동 50명 1년간 식품 후원  
기초생활품 패키지 등 추가

구미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장호 구미시장, 조경철 SK실트론 대외협력담당, 조민영 행복나래(주) 본부장, 최준 행복도시락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두끼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미시는 SK실트론, 행복나래(주)와 협력해 지역 내 아동 50명에게 1년간 약 1억 원 상당의 신선하고 건강한 밀반찬 도시락을 제공한다.



도시락 배송 외에도 기초생활품 패키지, 주거환경 개선, 정사·교육 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선정하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은 SK실트론 등 행복나래

(주)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의 지원을 통해 마련된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인 행복나래(주)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도시락 제조·배송 업체는 지역 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들에게 신선하고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다"라고 했다.

## 청도군, 군정 주요 현안 사업 토의 진행

관내 돌봄 공동체 지원 확인  
축제 명품화 발전 전략 모색

청도군은 지난달 27일 군정 제11회의실에서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분과 회의(일반·복지, 문화·예술·관광)'를 개최해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 17명과 관계 공무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자문 의견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일반·복지 분과에서는 △관내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세부 과제 제안 △지방소멸 대응을 극복하기 위한 청년 및 정주 인구



유입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 방안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 아이템 발굴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문화·예술·관광 분과에서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관광객 유치 방안을 위해 △청도 대표 축제의 명품화를 위한 고유 자원 활용과 현대적인 마케팅을 결합한 체계적인 발전 전략 모색 △유천 문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예술가 유치, 주민 참여형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로컬 비즈니스 지원 방안 모색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김하수 군수는 "청도군의 여러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과 민간 전문가들의 폭넓은 식견과 의견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길에 자문위원들 한분 한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청도군에 멋진 숲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실천이 중요"

성주, 농기센터서 농민 교육  
심폐소생술 직접 실습 전달

성주군은 지난달 27~30일까지 3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 안전 인식을 개선하고 농작업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농작업 안전분야 전문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해 추진했다.

교육 내용은 농업인이 안전하고 농작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재해 및 농기계 사고, 농작업 관련 질환 등의 예방교육과 응급상황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졌고, 교육생 모두 심폐소생술(CPR)을 직접 실

습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농업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농작업 시 안전수칙과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알게돼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일상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습관을 갖추고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시 보험 보험료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김주섭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몸소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천치유숲, 특별한 숲체험 프로그램 제공

장애학교 학생들 대상 초대  
산촌체험 · 식사 있는 숲체험

김천치유숲이 산촌마을과 함께 장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조용한 산촌마을에 축제의 장을 펼쳤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칠곡숲체원 소속 김천치유숲은 장애아동 300여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산촌체험과 건강한 식사가 있는 숲체험교육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천치유숲, 김천시시설관리공단과 경북 김천시 증산면 소재 산촌마을 경영체(김천옛날소씨마을, 송알송알산골이야기, 장만나

는), 산림복지전문업이 함께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림공예, 골드레킹 등의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장애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이 진행됐고 산촌마을에서는 전통장만들기 등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숲속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숲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프로그램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다.

이우진 칠곡숲체원 원장은 "장애아동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확대하고자 산촌마을 숲여행 프로그램과 산림치유서비스가 마련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과 협력해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주소방서, 긴급구조 종합훈련

성주소방서는 지난달 30일 (주)모토니 공장에서 화재 대응 및 긴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4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형 화재 및 복합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목표로, 성주소방서를 비롯한 경찰, 군, 유관기관 등 10여개 기관 및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실천차별 실시하였다.

(주)모토니는 다수의 인원이 상주하는 대규모 공장으로서,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훈련 내용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인명 구조 △재난단계별 대응요령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각 부서 및 기관의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재훈 기자**

## 칠곡 반려동물 펫스티벌 개최

2024 칠곡 반려동물 펫스티벌이 12일부터 칠곡보생태공원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

반려동물 관련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설치형 수의사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펫(pet)션쇼, 맹랑버스킹, 펫트니스 플레이, 무료 건강상담, 문제행동 교정 및 상담, 미용, 어질리티 체험, 캐리커처, 맹랑네트 플리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인다. 펫(pet)션쇼는 참가팀 20가조를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하고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우리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반려동물 행사인 만큼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소통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문화를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 영주 문경 상주 예천 봉화 의성



예천 새벗유치원, 체험 학습

예천군 새벗유치원은 지난달 20일 3층 체육실에서 유아 119명(6학급)을 대상으로 '조선 인재를 뽑다' 역할 체험을 실시했다.

'조선 인재를 뽑다' 역할놀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인재를 뽑는 시험과 시험에 장원급제해 행진하는 놀이를 해봄으로써 역할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 놀이를 충분히 즐기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협동의 개념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 인재를 뽑다' 역할놀이는 조선시대 시험을 치르는 선비의 복장을 입고, 문과시험준에서는 붓을 사용해 화선지에 자유롭게 표현해보고, 무과시험에서는 활쏘기, 말타기, 창던지기 등을 해보는 등 조선시대의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한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가상 놀이로 이루어졌다.

시험을 치른 어린이는 장원급제 준에서 사화를 쓰고 장원급제 행진을 통해 금의 환향의 체험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우수경 원장은 "아이들이 조선시대의 인재 선발 방식을 역할놀이로 체험하면서, 역사적 배경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봉화, 추계 석전대제 봉행

봉화군은 지난달 29일 봉성면 소재 봉화향교에서 옛 선현들의 업적과 공적을 추모하고 유교문화 정신을 계승하는 추계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석전대제는 관내 유림단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득 국회의원을 초헌관으로 추대하고 유림에서 아헌관, 종헌관을 맡아 흥기를 낭독하며 전통예법에 따라 전폐례를 시작으로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됐다.

석전대제란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의식행사로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에서 지내는 큰제사를 말하며 매년 봄(음력 2월), 가을(음력 8월) 상정일(上丁日)에 공자를 비롯한 5성(聖), 중국 송나라의 4현(賢), 우리나라의 설총, 최치원 등 18현에 대한 향사(享祀)를 매년 1회 공자탄신일(음력 8월 27일)에 거행하고 있다.

봉화향교 금강락 전교는 "향교의 석전대제를 통해 옛 성현의 덕을 기리고 선현들의 가르침을 본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전통문화가 후대에 온전히 전승되고 보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학봉역사문화공원 개원... 관광 연계 활용

민간위탁 관리자 선정 학봉 김성일 선생 추모 학봉종택과 관광 연계



권기창 안동시장은 "학봉역사문화공원이 미래 세대가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호국정신을 함

양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라며, "학봉 종택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서 역사와 문화를 계

승하는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송명주 기자

영주시수출기업협 'LA 한인축제' 참가

10개 업체 참여 제품 홍보 매체 통한 온오프라인 광고



영주시수출기업협의회(회장 권현준)는 '다양성이 축제 속으로'라는 주제로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현지시간) 4일간 미국 LA 코리아타운 서울 국제공원에서 개최된 'LA 한인축제'에 참가해 지역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올해로 51주년을 맞은 LA 한인축제는 한인 동포들의 문화행사로, 영주시는 2012년 풍기인삼을 시작으로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을 꾸준히 수출해 왔다. 현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수출 물량을 늘

리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영주를 대표하는 10개 업체(농업회사법인부성, 라삼농업회사법인, 사랑애부석태된장, 선비벌꿀, 편편에너지영농조합법인, 안정농협, 젊은인견, 풍기인삼공사영농조합법인, 풍기인

삼농협,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가 참여해 현장에서 홍삼, 벌꿀, 장류, 산양삼, 과실주스, 인견, 쌀 등 다양한 상품을 전시·판매했다.

라디오서울 '행자의 건강 차차차'와 LA 중앙일보 등 언론매체를 통한 온오프라인 광고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 농특산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미주 시장에 알리며 판로 개척에 힘썼다.

송명권 영주시수출기업협의회 상무이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업체에서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품을 가지고 LA 한인축회에 참가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영주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미국 시장의 지속적인 판로 확보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봉화 新소득 작목 '멜론' 첫 출하

봉화군의 신소득 작목인 멜론이 지난 9월 27일 본격적인 첫 출하를 시작했다.

15Brix 이상의 고당도와 멜론 고유의 향기가 강한 봉화 스마일멜론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봉화군의 여름 날씨를 활용한 멜론 재배기술 확립으로 10월에 출하되는 저품질의 멜론과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봉화 스마일멜론은 시설수박 재배 후 휴작기를 활용한 대체작물 밭갈이로 5개 농가 1.7ha에 1억8천만 원(군비 70%, 자부담 30%)을 투입해 고품질의 멜론재배 기반을 조성했다.

봉화군의 준고냉지 기후조건을 활용한 고품질 멜론 재배단지 조성으로 경북 최고 품질의 멜론 특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봉화 스마일멜론은 지난 9월 27일 8kg박스 첫 출하를 시작해 10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출하할 예정이다.

봉화 스마일멜론 작목반장은 "올여름 폭염이 지속됐으나 온도저감시설 도입과 봉화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고당도, 고품질의 멜론을 생산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어려운 기상여건 속에서도 농가들이 흘린 땀방울이 고품질의 멜론으로 결실을 맺었다"며 "봉화군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전상기 기자

쇼핑몰 영주장날, 풍기인삼 할인 기획전

인삼·홍삼 제품 20% 할인 신규가입 회원 할인쿠폰

영주장날 쇼핑몰에서는 이번 기획전 기간 인삼·홍삼 제품을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10월 영주장날 신규가입 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2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5천 원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27주년 풍기인삼축제를 기념한 이번 할인 기획전은 우수한 품질의 풍기인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한국 인삼의 자존심, '천년건강 풍기인삼'으로

환절기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시 풍기읍은 예부터 기후가 서늘하고 배수가 잘되는 마사토를 지녀 질 좋은 삼이 나기로 이름이 높았다. 북위 36.5도에 위치해 평균 7시간이 넘는 일조량과 11.9도의 높은 일교차가 특징인 지역으로 조직이 치밀하고 저장성 또한 우수해 가공에도 적합한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면역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유효사포닌 함량이 36종으로 미국산 19종, 중국산 15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전상기 기자

안동 축제 기간 '종부의 음식' 시식회 연다

신 안동찜닭 메뉴 무료 제공 시식회 부스 운영 5일까지

함께 개발한 신 안동찜닭 메뉴를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 현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시식회 부스 운영은 5일 까지며 시간이나 수량은 현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해 재료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식회 운영 시간 외에도 부스 운영시간 중 상시로 '종가 다과 시식 체험'과 '전통 용구 전시' 프로그램이 운영돼 종부의 부엌 부스를 찾는 관람객에게 전통 차 및 다과 시식, 전통 용구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종부의 부엌 시식회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안동의 대표 문화자원인 '수운잡방'의 메뉴가 안동을 찾는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홍보되길 바라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수운잡방'을 재해석한 메뉴가 안동의 새로운 대표 음식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종부의 부엌 시식회 운영 부스는 2024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체험부스 존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정신문화재단 문화도시팀 054)857-8303으로 하면 된다. 송명주 기자

영주 '특별한 선물축제' 참가...사과 홍보

서울 청계천 차 없는 거리 축제 방문시민들 시식 체험

선물축제'에 참가해 '영주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시는 농촌지도자영주시연합회(회장 박재열)와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영주사과를 홍보하고, 축제에 방문한 시민들이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시식 체험을 진행했다. 소백산 청정지역 영주시는 북위 36.5도에 위치

해 평균 7시간이 넘는 일조량과 11.9도의 높은 일교차로 사과 재배에 적합한 기후이다. 영주사과는 조직이 치밀하고 당도가 높아 맛과 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축제장을 찾은 임종현 (41세, 서초구)씨는 "달콤하고 아삭한 사과 맛을 보니 마치 영주에 와 있는 기분이다"며, "올해 가을이 가기 전에 소백산을 방문해 현지에서 영주사과를 맛보고 오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의성, 경북大 수상스포츠 체험교실

의성군은 지난 30일 단밀면 낙단보 청년통신사 일원에서 2024 경북대학교 수상스포츠 체험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대학교 체육학부 학생들과 지역민 등 100여명이 참여해 의성군이 수상스포츠의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체험교실에는 제트스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이민 선수와 이대수 선수를 비롯한 국내 최고 강사진 8명이 강습과 안전을 책임졌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배후지 의성군이 수상스포츠의 메카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경북대학교 정호원 교수는 "수상스포츠 체험교실을 통해 지역민과 더불어 상생하는 경북대학교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주수의성군수는 "이번 낙단보에서 열린 수상스포츠 체험교실은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수상레저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 月刊 정치와사람

11월 11일  
첫 만남!



이달의 주제를 소개합니다.  
정치와사람 11월호는  
정치와사람 11월호는  
정치와사람 11월호는